

東三省 總司令部 訪問
張學良氏 會見記(四)
親切한 答辯과 意味있는 握手

◇奉天에서

李灌鎔

그러나 그가 東三省 保安總司令이라니까 나는 그대로 맞을 수 맞게 업섯다. 『아—올치! 이 낭반이 喪中에 잇나!』하고 다시 생각한즉 그 衣服이 무명인 것, 그 容貌가 초좌한 것, 그 머리가 정돈되지 안은 것, 모든 것이 說明되 었다. 그리고 다시 본즉 그 容貌에 明敏한 것도 뵈이고 그 四肢에 生命의 脈이 뛰노는 것도 宛然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것보다 그 마음속에 잇는 것을 알고 싶혔다. 쏘 그도 『좀알러볼런?』하는 態度로 나를 유심히 보았다. 내 名銜을 자세히 샅피어 보더니 안지라고 자리를 勸한다. 陶氏도 그 옆헤 안저서 내말 나오기만 기다렸다. 나는 위선 總司令의 國民政府委員으로 選舉된 것을 慶賀하는 뜻을 表하였다. 總司令은 微笑와 感謝의 뜻으로 대답하였다. 『나는 朝鮮사람임으로 여기와서 總司令압헤 안저도 朝鮮사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滿洲에 잇는 朝鮮사람들의 모든 複雜한 問題에 對하야는 總司令도 잘 아실 터임으로 나는 말씀 안하겠습시다. 그러나 그 모든 問題가 解決되기 不可能할 것은 업습시다. 勿論 難關이 만차만 그 解決에 對하야 在滿朝鮮人과 東三省 當局 兩便이 誠意로써하면 解決이 圓滿 쏘 容易하게 될 줄 맞습시다』 한즉 그는 陶氏의 通譯을 빌어 『勿論 그릇습시다』라는 말을 傳하야 주었다. 나는 다시 말을 敷衍하야 『勿論 이 問題 解決에 對하야 東三省 當局에서도 만흔 材料를 가졌슬 것입시다. 그러나 이 材料 中 가장 重要한 것은 在滿朝鮮 人人의 要求가 무엇인 것을 調査한 것이 될 것입시다. 어린하실 것 아니지만 朝鮮사람들이 問題解決에 參加시킬 必要가 잇습시다. 내 個人은 滿洲에 살지 안습시다만 나도 이 問題 對하야 調査한 것이 多少間잇스며 쏘 只今도

調査하는 中입니다. 故로 나에게도 내 意見을 提出할 機會를 주신다면 나는 後日 一定한 意見書를 提出하여 參考에 供하고자 합니다』하고 나의 意見을 表示하였다. 陶氏의 通譯하는 말을 들은 總司諒은 나를 쳐다보더니 쏘 무에라고 앓아보려는 容顏을 말하였는데 陶氏는 쏘 『勿論 그러겠습니다』는 答言을 傳할 뿐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 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드러온 사람인고로 나는 못기 시작하였다.

問 『그 다음에 南北妥協에 對하여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南北이 妥協하여 東三省도 統一된 中國의 한 地方으로 된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東三省의 모든 事情은 中國本部의 그것과 사뭇 다른 것이 만하여 畢竟 東三省은 自治를 하게 되겠다는 소문이 잇스니 事實입닛가?』

答 『自治 云云에 對하여는 아직 모르나 何如間 여기는 固有한 事情이 잇스니가 여기 것은 大概 여기서 하게 되겠지요』하고 차차 말이 길어지기를 시작하였다.

問 『그러나 여기 事情이라고 다 여기서 다 하지는 못하겠지요. 여기 事情이라도 여기서 하지 못할 性質의 것, 假令 外交問題와 軍事問題에 關한 것 가튼 것도 여기서 하겠습닛가?』

總司諒은 얼마쯤 躊躇하였다. 그러나 남보게 너무 길게 躊躇한다는 눈치 띄이기 前에 答 『外交問題도 여기 關係된 것은 여기서 하게 되겠지요』하고 分明히 對答하였다. 나는 이것을 드를 썩 얼마쯤 놀래지 아니치 못하였다. 어제 新聞 南北京 電報에는 東三省 代表가 『外交問題까지 함께 東三省은 國民政府에 絶代로 服從한다』는 것이 分明하였다. 그래 或 通譯이 잘못되거나 안엇나하고 다시 못기를 問 『그러면 東三省 政府에도 外交問題를 取扱할 만한 무슨 外交機關을 設置 하겠습니까』한즉 答 『只今도 交涉署가 있습니다』 이 外에도 여러 가지 問題에 對하여 長時間 問答한 것이 잇스나 發表하지 마려달라는 約束이 잇섯슴으로 여기는 畧한다. 나는 이러나서 『밥부신데 고 맙습니다』라고 말할 썩 總司諒도 이러나 긋게 握手하고 나왔다.

거의 不可能하다고 傳하는 『張 總司諒 會見』의 目的을 達하고 在滿 朝鮮人 問題에 對하여 얼마쯤 東三省 當局과 서로 考究할 機緣을 만들게 된 것은 그 會見의 成果라고 볼 수 있다. 新聞記者로서 張 總司諒과 初 會見의 光策을 어더 한참동안 갖거이 그의 意見을 들기에 일은 나는 朝鮮日報 社를 代하여 張 總司諒과 및 그 會見을 斡旋하여 준 陶尙銘氏에게 甚히 感謝한 뜻을 表하고 이만 긋친다.